

불안, 성별 및 지배성, 진보성이 사회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들 중심으로

김 금 미*

성균관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이 은 경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불안과 성별이 사회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지배성 및 진보성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목적을 위하여 182명(여자 97명, 남자 8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불안과 지배성, 진보성 및 사회문제 해결을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 남성과 여성은 모두 불안이 높을 때보다 낮을 때 사회문제 해결을 더 잘 할 것이고, 특히 다른 조건들과는 달리, 여성이 불안이 낮은 경우에 성격특성이 더 잘 반영되어, 지배성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그리고 진보성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사회문제를 더 잘 해결하리라고 예상하였다. 남성의 경우에는 불안 수준에 관계없이 진보성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사회문제를 더 잘 해결하고, 지배성 수준에 관계없이 불안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사회문제해결 능력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러한 예상은 대부분 지지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사회문제 해결을 성차별적으로 지각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성별과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성격요인들을 탐색적으로 알아보고, 그 결과를 양성의 사회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마련에 적용할 수 있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들을 양성성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연구방법의 중요성과 더불어 본 연구의 의의, 한계 및 장래 연구의 과제도 함께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회문제해결, 문제 지향, 문제 해결기술, 성별, 성차, 불안, 지배성, 진보성

† 교신저자 : 김금미, (110-745)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성균관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E-mail : imttokki@hanmail.net

본 연구는 불안과 성별이 사회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지배성 및 진보성의 효과를 알아보고, 특히 성별과의 상호작용효과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즉, 불안과 성별이 사회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칠 때, 성별특성과 관련되는 지배성, 진보성의 효과를 알아본다.

연구의 필요성

Kaplan과 Sedney(1980)는 심리학의 성차별적인 시각으로, 성취, 공격성 등의 남성적 변인의 강조, 남녀의 유사성보다 차이를 더 부각하는 방법론상의 문제점, 연구자와 피험자가 남성임으로 인해서 여성의 참모습이 왜곡되거나, 거부되거나, 비하된 경우를 주장하고 상세한 예를 기술한 바 있다. 실제로 연구 방법의 측면에서, 연구의 주제가 여성과 남성에게 관련되지 않는 한은 성별을 하나의 가외변인으로 취급하여 주목하고자 하는 변인과 관련이 없음을 보이고 이후 분석에서는 배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연구에서 성별에 관심을 둔 경우에는 여성과 남성의 주효과에 초점을 두거나, 상호작용이 있어도 해석을 할 때에 성별 차이를 더욱 주된 관심 변인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기술하는데 그치므로, 오히려 이 연구의 결과들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간의 차이를 허물지 못할 유리철벽으로 고정관념화되는데 일조하는 면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예를 들면 좌뇌와 우뇌의 차이를 주장하면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생내적이고 기질적인 것이므로 이를 차별하면 안되지만 차이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성차에 관련한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성차가 있다고 주장된다. 예를 들면, 지능(특히 언어영역, 수리영역, 시지각 영역 등(Maccoby &

Jacklin, 1974), 자아존중감(Coopersmith, 1967; Kaplan & Sedney, 1980 재인용), 귀인(Deaux, 1976; Kaplan & Sedney, 1980 재인용), 성취동기(Kaplan & Sedney, 1980), 감정성(Maccoby & Jacklin, 1974), 대인관계(Maccoby & Jacklin, 1974)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차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들에 관하여 일부에서는 이것이 성역할 사회화의 결과일 뿐 기질적인 차이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인지적 측면에서 성차는 문화적인 영향으로, 남자는 수학을 잘해야 하고 여자는 글을 잘 써야 한다는 기대 때문에 여자는 글을 잘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있다(Tobias, 1982). 현재 시점에서는 성차가 있다, 없다, 혹은 성차의 기원이 무엇인가보다는, 성차가 학습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다는 점에 시각을 맞추고 있는 추세이다. 이 말은 곧 성차 자체가 주된 관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성차를 강조하는 것과 부각시키지 않는 것은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정한다면 여성과 남성간의 차별은 필연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그 주장의 근거로서 집단간의 관계에 관련한 사회적 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 Tajfel, 1982)을 들 수 있다. 이 이론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 범주에 따라 자존심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범주에 따른 자존심을 증가시켜서 자신의 자존심 향상을 꾀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실험을 간단히 설명해보자. 집단간에 아주 사소한 차이(예. 옷 색깔, 이름표 색깔 등)만 있는 상태(최소집단 상황)에서 집단간에 분배를 하게 한 결과, 자신의 집단에 더 많이 분배(내집단 편애)하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집단간에 아주 사소한 차이라도 차이만 있다면, 즉 자신의 집단과 다른 집단간에 범주가 구별될 수 있다면,

자신의 자존심 향상을 위해서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보다 자기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더 좋게 보고, 더 많이 주고, 혹은 다른 집단을 더 나쁘게 대우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관점은 남성과 여성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적인 사고를 지향한다면 성차를 강조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성차의 부각을 막기위하여 개인차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간이 세상에 관하여 범주화하는 능력이 인간의 적응에 도움을 주고, 성별은 외현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용이한 단서가 되므로, 사실 성차보다 개인차가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말은 당위성만을 주장하는 것일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성차는 존재한다.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인 측면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문제는 그 신체적인 차이의 측면보다 인간을 이해하는데 더 중요한 측면이 부각할 수 있다면, 즉 하나의 대상을 설명하는데 성차보다 더 설명량이 많거나 혹은 성차의 설명을 제한하는 측면을 밝힐 수 있다면, 성차를 인정하면서도 성별 자체가 강조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인간에 대하여 이해할 때 남성과 여성, 즉 성별의 주효과보다 상호작용효과를 봄으로써, 성차의 부각을 줄이면서 더 세밀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다음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성역할 이론과 관련한 지배성, 진보성 연구의 필요성

출생 이후에 자신이 남자 혹은 여자라는 것을 지각한 순간부터 인간이 성전형화되는 과정이 시작된다. 이 과정을 통해 형성된 성격특성, 태도, 선호경향, 행동 등을 모두 성역할이라고 한다. 이러한 과정은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 다른

성격특성, 태도, 선호경향, 행동을 습득하게 하는데, 이러한 결과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본다. 예를 들어, Parsons와 Bales(1955, Kaplan & Sedney, 1980 재인용), Bakan(1966, Kaplan & Sedney, 1980 재인용)은 남성적인 특성을 도구성, 행위주체성, 여성의 특성을 친교성, 표현성으로 보았다.

전통적인 성역할 일치 모형에서는 여성은 여성의, 남성은 남성의 성역할을 습득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적응을 돕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생각은 여성성과 남성성을 일차원적으로 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사람은 여성적이거나 남성적일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양성성 모형에서는 여성이나 남성이 모두 여성적이거나 남성적일 수 있다고 보는 이차원적인 시각을 취한다.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에게 여성적인 면과 남성적인 면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형용사들을 주고 자신에 대하여 보고하게 한 결과에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여성성과 남성성이 둘 다 기준보다 높으면 '양성성', 여성성이 기준보다 높고 남성성은 지니면 '여성성', 남성성이 기준보다 높고 여성성은 지니면 '남성성', 둘 다 낮은 경우에는 '미분화'라고 지칭한다(Sandra Bem, 1972, 김득란, 1992 재인용). 이 결과에 따르면 여성적인 남성도 있고, 남성적인 여성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과 남성을 이분화하여 세상을 지각하는 데에 한계점을 지적해준다.

본 연구도 이러한 시각에 맥을 같이 한다. 즉 예를 들면 남성의 특성에 해당하는 도구성과 행위주체성과 일관되는 지배성, 진보성을 양성성의 관점에서 성별과 관련지어, 사회문제해결에 상호작용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양성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여성도 지배적이거나 진보적일 수 있고, 남성이 모두 진보적이거나 지배적이지 않을 수 있다. 성별에 따라 이러한 성

격변인의 영향이 다르게 작용하리라고 예상하고 그 방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한편, 지배성과 진보성에 관련한 연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사회적 지각, 가치지향, 태도를 보수와 진보적 관점에서 조사한 연구(최상진, 1990)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의식구조에는 진보와 보수 측면이 절반씩 양분되며 특히 정치 사회적 의식 측면에서 이들의 사고방식을 기술하기 때문에 이 차원이 효과적인 차원이라고 제시하였다.

2003년에 유엔의 인간개발보고서에서 보면 여성권한척도GEM(Gender Empowerment Measure; 국회의원 수, 행정관리직 및 전문기술직에서 여성의 비율, 그리고 남녀소득차등을 산출기초로 함)는 총 70개국 중 한국이 63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여성권한 척도가 이처럼 낮은 이유는 상위권 국가들에 비해 의원 및 고위직에서 여성의 비율이 낮기 때문인데, 상위권 국가인 노르웨이는 여성의원 비율이 36.4%, 스웨덴은 45.3%였다. 일본이 10%(13위)인데 비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고위직에서 여성지위의 상대적인 열등성을 알 수가 있다(국제연합개발계획, 2003).

이러한 현상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진보적이기보다는 보수적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성 권위적인 지배문화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여성의 진보성이나 지배성이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여성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이후 법조계 움직임은 여성의 진보와 지배력에 대한 저항의 일면으로 볼 수 있다.

현대 사회는 여성과 남성에 관계없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Lord, De Vader, 및 Alliger(1986)는 통합분석 연구를 통해 지배성, 남성성/여성성, 지능이 리더십 지각과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지능은,

5대 성격 차원(Digman, 1990)의 정의에 따르면, 지적으로 유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경험에 대해 개방적임을 나타내어서 진보성과 관련된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리더십 발휘의 측면에서 진보성과 지배성이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진보성이나 지배성 성향이 강한 여성들의 리더십 추구에 수반되는 진보성과 지배성의 발휘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부당한 대우나 정서적 불안, 위축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진보성과 지배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인 영향이 크지만, 지금까지 진보성이나 지배성에 관련한 연구에서 성이 덜 변별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진보성, 지배성, 불안이 사회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배성, 진보성, 및 불안이 사회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사람이 해결이 필요한 곤란한 상황에 처하여 즉각 사용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이 없을 때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 때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해 문제 해결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사회문제 해결은 문제 상황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정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만드는 행동과정으로(D’Zurilla & Goldfried, 1971), ‘개인이 일상의 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거나 파악하는 과정’으로 정의 될 수 있다 (D’Zurilla & Nezu, 1982).

사회문제 해결의 과정에 대하여 이상적인 문제해결과정을 선정하고 그 과정에 따라 단계별 문제해결을 강조하는 과정적 접근(Dixon, Heppner, Peterson, & Ronning, 1979 : D’Zurilla & Goldfried,

1971; D'Zurilla & Nezu, 1982)과 전반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고 요소들을 강조하는 요소적 접근(Spivack, Platt, & Shure., 1976: Spivack & Shure, 1974)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과정적 접근에서는 효율적인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5단계 문제 해결 과정을 제안한다(D'Zurilla & Goldfried, 1971). 대부분의 문제해결적 치료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문제해결 과정의 체계적 분석은 이러한 접근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문제해결단계의 이상적 다섯 단계는 일반적 지향, 문제규정과 구성, 대안책 산출, 의사결정, 실행과 평가이다. 한편 요소적 접근에서는 문제해결 능력이 단일 요소가 아니라 개인의 사회 적응에 중요한 매개체라고 생각되는 일련의 상호 관련된 사회적 기술들이라고 보았다. 주된 대인관계 문제 해결 요소로 문제에 대한 민감도, 인과적 사고, 대안적 사고, 결과적 사고, 수단 목적 사고와 같은 능력들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심리적 적응과 사회문제해결 과정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인간을 적극적인 문제해결자로 보고, 심리적 적응이란 문제해결의 숙달 정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이들은 문제해결 기술을 사회적 유능성의 중요한 결정요소라고 보고 있으며, 사회적 유능성을 전반적인 심리적 적응이나 정신건강의 핵심요소라고 가정한다(D'Zurilla & Goldfried, 1971; D'Zurilla & Nezu, 1982).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eppner, Baumgardner와 Jackson(1985)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효율적인 문제해결자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비효율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에 비해 우울감이 덜했으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욱 동기화되어 있고, 성공적인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고, 충동적이거나 회피적인 경향이 적었으며,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역기능적이거나 비합리적

신념이 적었고(Heppner, Reeder, & Larson, 1984)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hililips, Paziienza, & Fenin, 1984). 또한 중년 여성의 내외통제소재의 차이에 따라 문제 해결 양식에서 보면 내적 통제집단이 외적 통제 집단보다 문제해결 상황에서 긍정적인 기대와 동기를 가지게 되고 적극적인 자세로 상황에 대처함이 밝혀졌다(이형초 · 최정윤, 1993). 그러므로 사회문제해결은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문제이고, 성격적 심리적 요인들이 사회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불안이 사회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

Cattell 등(1970; 염태호, 김정규, 1990 재인용)은 불안이 대단히 심할 경우에는 대체로 직무수행의 곤란 및 신체증상의 발병을 초래하게되며, 낮은 경우에는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일상 생활에서 별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으며 성취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불안은 자아강도가 극도로 약화되어 정서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이고, 이들은 타인들에 대해서는 강한 불신감을 가지거나 편집증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극심한 죄책감이 있어 무의식적으로 양심의 갈등을 느끼고 이러한 갈등에 기인한 의식적 불안과 다듬어지지 못한 자기 갈등이 있게 된다. 불안한 환자들에게는 대처행동에 결함이 있으며(Kagan, 1984),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태도와 능력의 연구에서 우울이 높아지면 불안수준도 함께 높아지는 추세를 관찰하기도 하였다(이미정 · 안창일, 1997). 불안 가운데에도 특히 시험불안의 경우에 시험 상황에서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Denny 1996), 이는 불안이 높은 경우에 사회문제해결이 어려운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진보성이 사회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진보성이 높은 사람들은 실험적 또는 급진적인 사람이다. 즉, 지적 문제에 관심이 있고 본질 문제를 추구한다. 분석적, 자유주의적 또는 개혁적이며, 사회문제와 정치문제에 관심이 많다. 전통을 무시하며 지성을 감정보다 중요시하고 구태의연한 사고방식과 행동을 비판한다. 많은 정보가 있고 도덕에 구애받지 않는 편이며 변화를 시도한다(Cattell et al, 1970 염태호, 김정규, 1990 재인용). 따라서 진보적인 사람들은 틀에 매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보다 당면한 문제에 관하여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사회문제해결을 더 잘 하리라고 예상된다.

지배성이 사회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

지배성은 가장 많이 연구된 성격요인의 하나이다. 지배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주장을 할 수 있고 독립적이며, 결단력이 있고 공격적, 권위주의적, 정력적, 반항적이고 자신만만하다(Cattell et al, 1970, 염태호, 김정규, 1990 재인용). 이들은 앞에 나서려 하고 독단적 생각과 행동을 하는 편이며(Krug, 1981), 스스로를 공격적이고 경쟁을 좋아하며 자신에게 강요적이고, 대인관계에서 직선적이며 자기 방식대로 밀고 나가는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즐긴다고 보고했다(Cattell et al, 1970, 염태호, 김정규, 1990 재인용; Krug, 1981). 사회문제 해결능력은 적극성과 사회적 유능성을 요하므로, 지배성이 높을 경우에 더 사회문제해결을 더 잘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성별과 불안, 지배성, 진보성이 사회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

우리 사회에서는 성장 과정에서 여성보다 남성에게 지배성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도구적, 행위주체적이라는 서양의 성역할 규정과도 일관되는 바가 있다. 또한 여성에게는 복종적인 미덕을 강조한다. ‘현모양처’상이나, ‘천상 여자’라고 하는 여성상에는 낮은 지배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지배성이 높은 여성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보다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더 경험했을 수 있고, 그 결과 사회적으로 부적응감을 느끼거나 스스로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 여성의 경우에 지배성이 높아서 강한 비판정신을 지니게 되면 부당한 현실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Karson & Haupt, 1968).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불안 수준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여성의 경우에 불안이 높으면서 지배성이 강할 때는 오히려 지배적 공격성이 감소된다는 주장이 있다(Karson & O'Dell, 1976). 또한 사회적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평가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 억제에 심했다(Renee, 1988, 권희경, 1991 재인용; Yano, 1987, Rodriguez, 1980). 또한 자기표출과 불안의 연구에서 여성은 사회적 승인과 수용받기 위해서 적당한 표현 욕구를 갖지만 무시나 거절에 대한 근심과 걱정 공포로 인해 자기표출을 하지 않으려는 이중적인 경향성도 있었다(Johnson, 1980). 요약하면, 여성은 사회적으로 지배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배성이나 진보성이 낮은 여성은 자신의 특성을 억압하기가 쉬운데 이러한 억압은 불안을 표명하지 않으려는 것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반응을 하려는 경향성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Baumeister & Chairns, 1992).

이와 일관되게 불안 수준이 낮으면 자기억압이 낮고, 자기 표현의 질과 양이 높은 반면에, 불안수준이 높으면 자기표현을 기피하고 두려워한다(신완수, 1995). 또한 불안한 사람은 자기보호와 자기방어에 집착하고 심한 경우 대인관계

를 파괴하기도 했던 실험 결과(Melesko & Alden, 1993)에서 사회적인 적응과 문제해결에서의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특히 한국사회와 같이 유교적 전통이 강한 사회에서 여성의 경우에 강직한 사회규범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억압하고 그 결과 히스테리가 나타날 수도 있다(이부영, 1993). 또한 차재호(1994)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동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모략, 비방 등을 하는 부적응행동을 야기하고 행동이나 말을 극단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다고 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더욱 더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억제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불안 수준이 낮고 지배성이 높은 여성의 경우에 다른 조건들에 비하여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도 덜 억제적이고 대인관계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친밀한 인간관계형성에 도움이 되므로(신원수, 1995) 사회문제해결을 더 잘 할 것이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지배성이 더 강조되면서 ‘남자답게’ 키워지고, 이에 따라 지배성은 남성성을 표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차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볼 때 아직 개인 생활에서 지배성을 표현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우리 문화 규범은 위계질서를 중요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남성이라도 아직 학생의 신분이라면 과도한 지배성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에 있어서 지배성이 강한 사람은 불신감, 사면성, 반항성을 보일 수 있다(Cattell et al, 1970, 염태호, 김정규, 1990 재인용). 따라서 지배성과 그 반대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 복종성은 남자 대학생에게 어느 극단도 자아상에 긍정적이지 못하다. 지나치게 지배적이어도, 혹은 복종적이어도 자신을 호의적으로 드러낼 수 없다는 의미

이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에게 관련되고, 중요하며, 자신을 긍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차원, 즉 추구할 차원의 방향이 명확한 차원에서 자신을 판단하고자 한다(Tesser, Campbell, & Smith, 1984). 그 결과 남자 대학생은 지배성 차원을 자신을 중요하게 규정짓는 차원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즉 남성은 지배성의 영역에 가치를 덜 둘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문제에 있어서 지배성에 의한 영향은 불안 수준의 영향보다 낮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 남성의 경우에는 지배성의 영향보다 불안 수준에 따라 사회문제 해결에서 능력의 차이를 보이리라고 예상된다. 즉 지배성에 관계없이 불안수준이 낮을 때에는 사회문제 해결을 잘할 것이고 불안 수준이 높을 때에는 사회문제 해결능력이 낮을 것이다.

한편 진보성은 지배성과 비슷하지만 성별에 따라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리라고 예상된다. 여성의 경우에 진보성과 지배성이 지니는 의미는 여성성 측면에서 의미가 비슷하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에는 지배성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리라고 생각된다. 즉 불안이 낮고 진보성이 높을 때에는 진보성이 낮을 때에 비교하여 사회문제 해결능력이 더 높을 것이다. 그러나 불안수준이 높아지면 불안의 억압에 의하여 진보적인 수준에 관계없이 사회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에 진취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사회 특유의 전통적인 유교 숭상에 따른 보수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바가 있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에는 진보성과 보수성 가운데 추구해야 하는 하나의 특성이 두드러지지 않지만, 둘 다 추구해야 할 특성이 된다. 즉 두 차원이 모두 긍정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자신이 진취적이라고 하든지 보수적이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Tesser 등(1984)에 의하면 자신에게

중요한 차원에서 자신을 비교 평가하려 하는데, 이는 자아의 평가 차원과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에게 좀 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불안 수준보다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성의 경우에는 불안보다 진보성이 사회문제해결에 영향을 더 미칠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생 남성의 경우에는 불안수준에 관계없이 진보성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사회문제 해결 능력이 높을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증할 가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I. 불안의 주효과 가설: 불안수준이 높을 때보다 낮을 때 사회문제 해결을 잘 할 것이다.

가설 II. 지배성의 주효과 가설: 지배성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사회문제 해결을 잘 할 것이다.

가설 III. 진보성의 주효과 가설: 진보성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사회문제 해결을 잘 할 것이다.

가설 IV. 불안, 성별, 지배성의 삼원상호작용 효과 가설:

가설 IV-1. (가) 여성의 경우 불안이 낮을 때 지배성이 낮은 조건보다 지배성이 높은 조건에서 사회문제 해결 수준이 더 높지만, (나) 불안이 높을 때에는 지배성의 조건에 관계없이 사회문제 해결 수준이 낮을 것이다.

가설 IV-2. (가) 남성의 경우 불안이 낮을 때 지배성의 조건에 관계없이 사회문제 해결 수준이 높고, (나) 불안이 높을 때에는 지배성의 조건에 관계없이 사회문제 해결 수준이 낮을 것이다.

가설 V. 불안, 성별, 진보성의 삼원상호작용 효과 가설:

가설 V-1. (가) 여성의 경우 불안이 낮을 때 진보성이 낮은 조건보다 진보성이 높은 조건에

서 사회문제 해결 수준이 더 높지만, (나) 불안이 높을 때에는 진보성의 조건에 관계없이 사회문제 해결 수준이 낮을 것이다.

가설 V-2. (가) 남성의 경우 불안이 낮을 때 진보성이 낮은 조건보다 진보성이 높은 조건에서 사회문제 해결 수준이 더 높고, (나) 불안이 높을 때에도 진보성이 낮은 조건보다 진보성이 높은 조건에서 사회문제 해결 수준이 더 높을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 시내 소재 S대학과 D대학에서 교양강좌를 수강하는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이중 회수되지 못한 것과 문항을 빠뜨린 것들을 제외한 182부가 분석되었다. 이 가운데 남성은 85명(46.2%), 여성은 97명(52.7%) 이었고 평균연령은 22.9세(표준편차 2.4)였다.

측정도구

사회문제 해결 양식 검사(SPSI)

일상 생활 문제와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일반화된 태도와 양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D'Zurilla 와 Nezu(1990)가 개발하였고 김영미(1992)가 번안한 사회 문제 해결 양식 검사(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 이하 SPSI라 명칭)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2개의 주요 척도와 7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 척도당 10문항씩 총 70문항으로 되어있다. 두 개의 주요 척도는 문제지향척도와 문제해결 기술 척도이다. 이 두 척도를 합하여 사회적 문제해결 총점수(Social Problem

Solving Scale)를 계산한다.

문제지향척도는 한 개인이 문제상황에 처음 직면했을 때 보이게 되는 즉각적인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들로 이루어지며, 신념, 가정 및 문제상황과 연합된 특별한 평가들을 포함한 전반적인 동기 요소를 측정한다. 하위척도로는 인지척도, 정서척도, 행동척도가 있다. 문제해결 기술척도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일련의 기술이나 목표지향적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척도로는 문제규정과 구성 척도, 대안적 해결책의 산출 척도, 의사결정 척도, 해결책 실행과 확인 척도가 있다. 전체문항의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이 1/2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되어있다(0-전혀 그렇지 않다, 1-별로 그렇지 않다, 2- 그저 그렇다, 3- 그렇다, 4-매우 그렇다). 부정적인 문항의 경우에는 채점할 때 역으로 계산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 능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 중년여성과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문제지향척도와 문제해결기술척도에서 .85~.88의 수준이었다(이형초, 1992).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문제지향척도 .91, 문제해결기술척도 .95였고, 사회문제 해결 총점수는 .87의 내적 일치도 계수를 보였다.

불안, 지배성, 진보성 문항

불안과 지배성, 진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atell의 16PF(Sixteen Personality Factor Questionnaire)를 염태호, 김정규(1990)가 번안하여 표준화한 척도 가운데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다. 2차 요인 가운데 불안을 구성하는 문항은 자아강도, 소심-대담, 편안-죄책, 통제력, 이완-불안 등인데 이에 대한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81이었고, 진보성은 .57, 지배성은 .61이었다. 전체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1-전혀 아니다, 2-아니다,

3-중간이다, 4-그렇다, 5-아주 그렇다), 각 하위척도당 10문항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문항의 총점을 사용하였으며, 각각 점수가 높을수록 각 특성을 더 많이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은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할 때가 있다.’, ‘조금이라도 일이 뜻대로 안되면 초조하고 속이 탄다.’, ‘다른 사람에게 성급하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등이다. 또한 지배성을 측정하는 문항은 ‘남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단한 행동은 하고 싶지 않다.’, ‘나에게는 확실히 남들보다 뛰어난 면도 있다.’, ‘나는 예의바르고 조용한 성격이다.’ 등이다. 진보성을 측정하는 문항은 ‘우리 사회는 혁신과 개혁을 추구하는 이상주의자들이 더 필요하다.’, ‘정부의 발표는 거의 믿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부모와 의견이 다를 때 반드시 부모의 의견을 따를 필요는 없다.’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의 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 11.0 for Windows로 처리하였다. 각 변인의 수준이 사회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불안, 지배성, 보수성을 각 특성의 평균을 중심으로 반으로 나누어 상하 두 집단을 구성하고 성별과 아울러 변량분석 방법을 통해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회귀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결과 및 논의

성별 차이와 변인간 상관관계

먼저 성별에 따른 불안, 지배성, 진보성 및 사

표 1. 불안, 지배성, 진보성이 사회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

| | 불안 | 지배성 | 진보성 | 사회문제해결 |
|--------|----------------------|-----------------------------|--|--|
| 불안 | - | -.142 (-.184 [*]) | .098 (.136 ⁺) | -.528 ^{***} (-.580 ^{***}) |
| 지배성 | -.199 ⁺ | - | .249 [*] (.302 ^{***}) | .342 ^{***} (.230 ^{**}) |
| 진보성 | .071 | .409 ^{***} | - | .120 (.117 ⁺) |
| 사회문제해결 | -.600 ^{***} | .099 | .209 ⁺ | - |

주1. 左下는 남성, 右上은 여성(전체)

주2.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회문제해결의 평균(표준편차)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불안 155.68(55.52), 지배성 32.42(4.96), 진보성 32.34(4.10), 사회문제해결 173.68(29.39)이었고, 여성의 경우 불안 183.98(51.55), 지배성 31.65(4.57), 진보성 33.48(4.50), 사회문제해결 165.89(28.03)이었다. 이 가운데 불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변인들에서는 성별간의 차이는 없었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상관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불안은 지배성과 사회문제해결과의 부적인 관계를, 지배성은 진보성과 사회문제해결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불안이 높을수록 지배성과 사회문제해결 수준은 저하되고, 지배성이 높을수록 진보성과 사회문제해결능력은 더 나아진다. 또한 진보성이 높을수록 사회문제해결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었다. 한편 여성의 경우에는 사회문제해결과 지배성이 정적인 관계였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다는 점에서 성별 차이가 있었고, 나머지 변인들간의 관계에서는 비슷한 상관의 결과를 얻었다.

불안, 지배성, 진보성이 사회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먼저 불안, 지배성, 진보성이 각각 사회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먼저 평균을 기

준으로 불안을 고, 저 두 수준으로 나누고, 불안에 따른 사회문제해결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불안이 높은 조건보다 낮은 조건에서 사회문제해결 수준이 높았다, $F_{(1, 181)} = 52.65$, $p < .001$. 따라서 가설 I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지배성에 따른 사회문제해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불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균을 기준으로 반분하여 두 수준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에서 지배성이 낮은 조건보다 높은 조건에서 사회문제해결 수준이 높았다, $F_{(1, 181)} = 7.53$, $p < .01$. 따라서 가설 II도 지지되었다. 또한 진보성에 따른 사회문제해결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로 진보성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사회문제해결 수준이 높았다, $F_{(1, 181)} = 6.34$, $p < .05$. 따라서 가설 III도 지지되었다.

이어서 불안, 성별, 지배성, 진보성이 종합적으로 사회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2(불안: 고/저) × 2(성별: 여/남) × 2(지배성: 고/저)의 조건에서 각각 사회문제해결의 평균(표준편차)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먼저 불안, 성별, 지배성의 삼원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가 유의하였다, $F_{(1, 181)} = 10.30$, $p < .001$. 이에 따라 각 조건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본 연구의 가설에 따라서 단순상호작용 효과의 분석을 살펴보았는데, 이 가운데, 여성의 경우에 불안과 지배

표 2. 불안, 성별, 지배성의 각 조건별 사회문제해결의 평균(표준편차)

| | 여성(n=97) | | 남성(n=85) | | 전 체 (n=182) |
|----------------|-------------------|-------------------|-------------------|-------------------|-------------------|
| | 지배성 저 (n=54) | 지배성 고 (n=43) | 지배성 저 (n=48) | 지배성 고 (n=37) | |
| 저 불안 (n=90) | 167.72 (4.92) | 191.78 (5.80) | 186.63 (4.79) | 190.05 (5.57) | 183.22 (24.39) |
| 고 불안 (n=92) | 150.66 (4.57) | 163.12 (4.92) | 152.95 (5.43) | 159.47 (6.04) | 156.23 (26.67) |
| 전 체 (n=182) | 158.56 (25.69) | 175.12 (28.40) | 171.90 (31.04) | 176.00 (27.36) | 169.52 (28.86) |

* ()안은 표준편차

성에 따른 이원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고, $F_{(1, 93)} = 3.99, p < .05$, 남성의 경우에 불안과 지배성에 따른 이원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F_{(1, 81)} = .21, n.s.$.

여성의 경우에 유의한 단순상호작용 효과를 더 자세히 알아보고, 가설과 일관되게 불안이 낮은 조건에서 지배성이 높은 경우에 사회문제 해결을 잘하고, 불안이 높은 경우에는 지배성에 따라 차이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불안의 각 수준에서 단순단순주효과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불안이 낮은 조건에서 지배성의 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다, $F_{(1, 41)} = 13.57, p < .001$, 즉 여성이 불안이 낮을 때에는 지배성이 낮을 때보다 지배성이 높을 때 사회문제를 더 잘 해결하였다. 그러나 불안이 높을 때에는 지배성의 수준에 따라 사회문제해결 수준에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F_{(1, 52)} = 2.85, n.s.$. 이는 가설 IV-1의 (가)가설과 (나)가설을 모두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남성의 경우에는 단순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가설에 따라 지배성의 수준에 상관없이 불안의 수준에서만 차이가 있는지, 즉

각 불안 수준에서 지배성의 차이가 없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불안수준이 낮을 때와 높을 때 각각 지배성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저불안 $F_{(1, 45)} = .23, n.s.$, 고불안 $F_{(1, 36)} = .59, n.s.$). 참고로, 지배성이 낮을 때와 높을 때 각각 불안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지배성이 낮을 때, $F_{(1, 46)} = 19.32, p < .001$ 와 높을 때, $F_{(1, 35)} = 16.39, p < .001$ 모두 사회문제해결에서 차이가 있었고, 불안이 낮을 때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IV-2의 (가)가설과 (나)가설을 모두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에 불안이 낮고 지배성이 높을 때 남성의 같은 조건과 비슷하게 높은 수준으로 사회문제해결 수준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의 경우에는 불안이 낮을 때 지배성에 관계없이 사회문제해결을 잘 하는데 비하여, 여성의 경우에는 불안이 낮더라도 지배성이 낮을 때에는 사회문제해결 수준이 저하되었다. 이는 여성이 지배성에서 영향을 더 받는다는 간접적인 증거로 보이고, 그 원인은 여성적인 성역할 사회화에 있으리라고 추측된다. 이러한 삼원상호작용효과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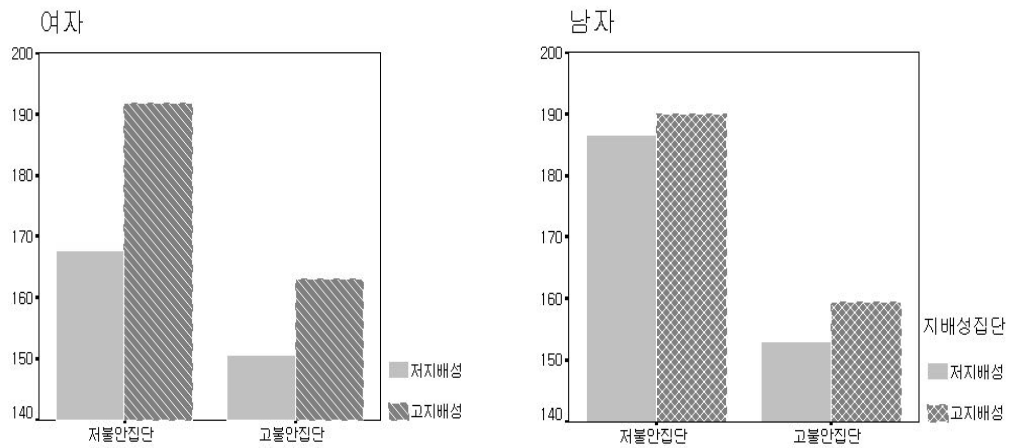


그림 1. 불안, 성별, 지배성에 따른 사회문제해결의 삼원상호작용

다음으로 불안, 성별, 진보성이 사회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2(불안: 고/저) × 2(성별: 여/남) × 2(진보성: 고/저)의 조건에서 각각 사회문제해결의 평균(표준편차)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불안, 성별, 진보성의 삼원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가 유의하였고, $F_{(1, 181)} = 11.44$, $p < .01$, 이에 따라 각 조건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본 연구의 가설에 따라서 단순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여성의 경우에 불안과 진보성에 따른 이원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F_{(1, 93)} = 2.29$, n.s., 남성의 경우에 불안과 진보성에 따른 이원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F_{(1, 81)} = 2.29$, n.s.

단순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가설과 비교하여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불안의

표 3. 불안, 성별, 진보성의 각 조건별 사회문제해결의 평균(표준편차)

| | 여성(n=97) | | 남성(n=85) | | 전 체 (n=182) |
|----------------|-------------------|-------------------|-------------------|-------------------|-------------------|
| | 진보성 저 (n=43) | 진보성 고 (n=54) | 진보성 저 (n=44) | 진보성 고 (n=41) | |
| 저 불안 (n=90) | 172.77 (5.19) | 183.04 (5.31) | 181.08 (4.88) | 196.04 (5.19) | 183.25 (24.42) |
| 고 불안 (n=92) | 152.78 (5.31) | 158.75 (4.24) | 141.52 (5.58) | 170.21 (5.58) | 156.89 (26.74) |
| 전 체 (n=182) | 163.02 (27.72) | 168.23 (28.32) | 164.00 (27.77) | 184.12 (27.78) | 170.26 (28.95) |

* ()안은 표준편차

각 수준에서 단순단순주효과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불안이 낮은 조건에서 진보성의 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F_{(1, 41)} = 2.00$, n.s. 이는 가설 V-1의 (가)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다. 또한 불안이 높을 때에 진보성의 수준에 따라 사회문제해결 수준에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F_{(1, 52)} = .60$, n.s. 이는 가설 V-1의 (나)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남성의 경우에도 단순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가설에 따라 불안 수준보다 진보성의 수준에서 더 영향을 받는지, 즉 저불안과 고불안 조건에서 모두 진보성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사회문제해결 수준이 더 높은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불안수준이 낮을 때와 높을 때 각각 진보성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저불안 $F_{(1, 45)} = 5.00$, $p < .05$, 고불안 $F_{(1, 36)} = 16.79$, $p < .001$). 이러한 결과는 가설 V-2의 (가)가설과 (나)가설을 모두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삼원상호작용이 유의한 이유는 남성의 불안수준에 따른 진보성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여성이 불안이 낮고 진보성이 높을 때와 진보성이 낮을 때에 사회문제해결 수준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이는 여성의 경우에 진보성의 기준이 낮아서 자신의 실제 진보성보다 더 높게 지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지금까지 불안과 성별의 상호작용에 지배성과 진보성이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참고로 불안과 성별간의 이원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F_{(3, 181)} = 2.04$, n.s.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지배성과 진보성이 각각 불안과 성별의 효과에 상호작용하여 삼원상호작용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 불안이 낮고 지배적일 때 나머지 수준들에 비하여 사회문제해결 능력이 높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여성의 잠재능력의 개발과 활용이 곧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관점에서, 여성의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남성의 경우에는 지배성과 진보성이 약간 다르게 작용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배성의 경우에는 불안이 높을 때 지배성의 수준에 관계없이 사회문제해결 수준이 현저히 떨어졌고, 진보성의 경우에는 불안이 높고 진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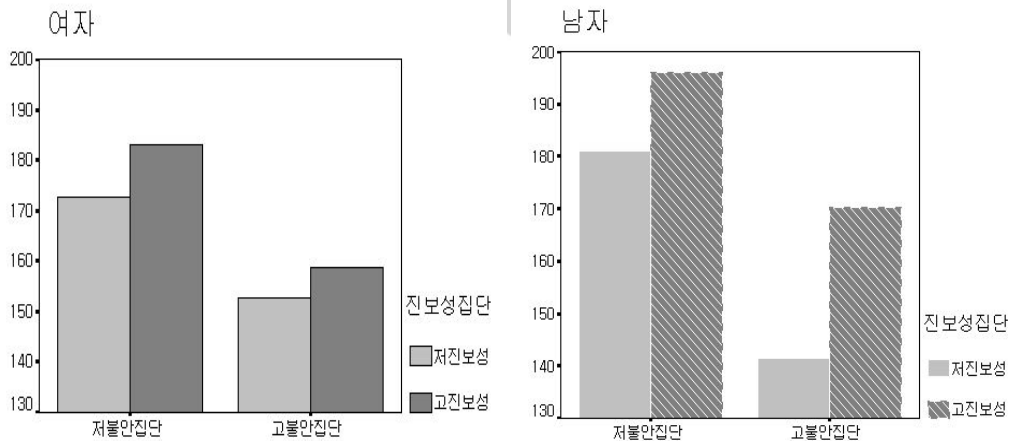


그림 2. 불안, 성별, 진보성에 따른 사회문제해결의 삼원상호작용

이 낮을 때에만 현저하게 낮게 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남성에게 있어서 교육내용과 현실 생활에서 갈등과 변인 자체 의미의 긍정성과 부정성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과 그 개선 방향은 앞으로 더 연구해 볼 일이다. 예를 들면 지배성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지능이 낮은 사람이 지배적인 경우는 드물지만, 지배성에서 너무 높은 점수일 경우에는 내심에 있는 열등감을 숨기고, 겉으로 공격적, 적대적 또는 완강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적대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기도 한다는 주장도 있다(Karson & O'Dell, 1976). 따라서 지배성의 의미가 사회문제해결에 관련하여 상반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또한 사회문제해결척도는 문제 지향과 문제해결기술의 두가지 하위척도를 지닌다. 삼원 상호작용의 경우에는 두가지 하위척도도 총점과 마찬가지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지배성: 문제 지향척도($F_{(7, 181)} = 16.20, p < .001$), 문제 해결기술척도($F_{(7, 181)} = 3.71, p < .001$); 진보성: 문제 지향척도($F_{(7, 181)} = 17.82, p < .001$) 문제 해결기술척도($F_{(7, 181)} = 3.54, p < .001$)).

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하위 척도별로, 지배성의 경우와 진보성의 경우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서 단순주효과를 살펴보았다. 문제 지향척도에서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진보성에 따라서 사회문제해결기술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F_{(3, 96)} = 1.338, n.s.$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진보성이 높다고 할때 개념적인 지향과 지식 등이 우선되고 생활에 있어서 생활의 해결기술로는 이용되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될 수 있다.

연구의 의의 · 한계 및 장래 연구의 과제

본 연구의 의의로 먼저, 성별과 관련한 상호작용효과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성차를 덜 부각하는 심리학적인 연구방식을 제안한 점을 들 수 있다. 성차를 강조하는 경우에 차별이 필연적 결과임을 앞서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성별은 덜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성별에 관련한 연구는 필요하다. 이에 성별을 포함한 상호작용의 연구를 통해 성별의 주효과보다 더 중요한 다른 변인들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사회문제해결을 예언변인으로, 성별, 불안, 지배성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장 중요한 변인은 불안으로 33%를 설명하였고, 다음은 지배성으로 1%를 더 설명하였다. 또한 동시회귀분석 결과에서 성별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불안, 지배성, 성별의 세 변인이 전체 사회문제 해결의 34.6%를 설명하였다.

또한 성별, 불안, 진보성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변인은 불안이었고 사회문제해결의 33%를 설명하였고, 진보성은 4%를 설명하였다. 또한 동시회귀분석 결과에서 성별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불안, 진보성, 성별의 세 변인이 전체 사회문제 해결의 37.3%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의 사회문제 해결의 설명에서 성별보다 불안, 진보성 등이 더 중요한 변인임을 밝힐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여성과 남성의 성별 사회화의 결과를 시사하면서도 동시에 성별이 부각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여성 가운데에도 불안이 낮고, 지배적 성격일 때는 사회문제해결 점수가 높다는 점을 보여서 여성에 대한 복종적인 성역할 사회화에도 불구하고 남성만큼 사회문제해결이 잘 되는 조건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여성의 경우에 불안이 낮아서 인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더 잘 작동할 수 있는 조건에서도 지배

성과 진보성이 낮을 때 사회문제 해결 능력에 더 많은 손상을 받는 점,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 여성보다 불안이 높고 진보성이 낮을 때와 불안이 높고 지배성이 높을 때 사회문제 해결이 여성보다 더 어려운 점에 주의하여 각 성의 성역할사회화 과정에서 진보성과 지배성의 긍정적인 측면이 부가되도록 양성평등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시사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진보성과 지배성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가 .60 내외(지배성 .61, 진보성 .57)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이 .60이긴 하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지배성과 진보성을 측정하는 더 적당한 척도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학생이어서 성장기 막바지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발달상의 문제점을 잘 반영하는 점도 있다. 그러나 대학생은 전체 연령대를 망라하여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연령대에서 본 연구의 효과를 재검증 할 수 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불안과 성별, 및 지배성과 진보성의 삼원상호작용효과의 반복 검증과 이러한 효과의 원인에 관한 탐색,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남성의 경우에 남성에게 가해지는 성역할 사회화의 요구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할 때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여성보다 남성이 덜 표현적이므로 해소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관련한 사회적인 지지 및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양성평등정책과도 일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권희경 (1991). 장의존성과 내외통제성의 일치여부와 자아개념.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득란 (1992). 양성적 남녀의 성역할 반응양식과 관련변인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영미, 김중술 (1992). 우울증 환자들의 사회적 문제해결. 서울 의대 정신의학.
- 김정규 (1990). 성격요인검사 표준화 예비연구. 사회과학 논총, 성신여자 대학교.
- 염태호, 김정규 (1990) 성격 요인검사; 실시요강과 해석방법. 한국심리적성연구소.
- 이미정 (1993). 우울감이 사회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미정, 안창일 (1997). 우울한 사람들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과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85-100.
- 이부영 (1983). 한국인의 윤리관.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형초 (1992). 성역할 정체감이 여성의 우울감과 사회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형초, 최정윤 (1993) 통계 소재와 사회적 문제 해결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2).
- 국제연합개발계획 (2003). 인간개발보고서 2003: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 compact among nations to end human poverty*. 국제 연합 개발 계획.
- 차재호 (1994). 문화설계의 심리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1990). 한국대학생의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지각, 태도 및 가치정향 : 진보-보수적 정향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1), 85-131.
- Baumeister, R. F., & Chairns K. J. (1992). Repression

- and self-presentation: When audience interfere with self deceptive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5), 851~861.
- Catell, R. B. (1957). The conceptual and test distinction of neuroticism and anxiet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3, 221-233.
- Catell, R. B., Eber, H. W., & Tatsuoka, M. M. (1970). *Hand book for the Sixteen Personality Factor Questionnaire*. Institute for Personality and Ability Testing, Inc., Champaign. Illinois.
- D'Zurilla, T. J. & Nezu, A. M. (1990). Development and preliminary evaluation of the 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 156-163.
- D'Zurilla, T. J. and Nezu, A. M. (1982). Social problem-solving in adults. In P. C. Kendall(Ed.). *Advances i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and therapy*, New York: Academic Press.
- D'Zurilla, T. J., Goldfried M. R. (1971) Problem solving and behavior modific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8, 107-126.
- Denney, J. P. (1996). Effects of anxiety and intelligence on concept formation. *Journal of Experiment Psychology*, 72, 496-602.
- Digman, J. M. (1990). Personality structure: Emergence of the five-factor model.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1, 417-440.
- Dixon, D. N., Heppner, P. P., Peterson, C. H., & Ronning, R. R. (1979). Problem-solving workshop trai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6, 133-139.
- Heppner, P. P., Baumgardner, A., & Jackson, J. (1985). Problem-solving self-appraisal, depression and attributional style: Are they related?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9, 105-113.
- Heppner, P. P., Reeder, B. L., & Larson, L. M. (1983). Cognitive variables associated with personal problem-solving appraisal: Implications fo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 537-545.
- Johnson. M. N. (1980). Self-disclosure: A variable in the nurse: Client relationship. *JPN and Mental Health Services*, 107, 1003-1013.
- Kagan, J. (1984). Reflection-impulsivity: The generality and dynamics of conceptual tempo.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1, 17~24.
- Kaplan, A. G., & Sedney, M. A.(1980). *Psychology and Sex Roles: An Androgynous Perspective*. Boston, Toronto: little, Brown and Company.
- Karson, S., & Haupt, T. D. (1986). Second order personality factors in parents of children guidance clinic patients. in R. B. Catell(Ed.). *progress in clinical psychology through multivariate experimental designs*. Fort Worth, Texas: Society of Multivariate Experimental Psychology.
- Karson, S., & O'Dell, J. W. (1976). *Clinical use of the 16 PF*. IPAT, Champaign. Illinois.
- Krug, S. E. (1981). *Interpreting 16 PF Profile pattern*. IPAT, Inc., Champaign. Illinois.
- Lord, R. G., De Vader, C. L., & Alliger, G. M. (1986). A meta-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personality traits and leadership perceptions: An application of validity generalization procedur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1, 402-410.
- Maccoby, E. E. & Jacklin, C. N.(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lif.: Stanford

- University Press.
- Maslow, A.(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 Meleshko, K. G. & Alden, L. E. (1993). Anxiety and self disclosure: Toward amotivational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6), 1000-1009.
- Phillips, S. D., Pazienna, N. J., & Ferrin, H. H. (1984). Design making style and problem solving appraisa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497-502.
- Spivack, G., & Shure, M. (1974). *Social adjustment of young children: A cognitive approach to real-life problems*. Washington: Jossey-Bass.
- Spivack, G., Platt, J. J., & Shure, M. (1976). *The Problem solving approach to adjust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 Tesser, A., Campbell, J., & Smith, M.(1984). Friendship Choice and performance: Self-evaluation maintenance in childr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561-574.
- Tobias, S. (1982). Sexist equations. *Psychology Today*, 16(1),14-17.
- Weinberg, J. R. (1982). Counseling the person with alcohol problem. In N. J. Estes & M. E. Heinemann(Eds.), *Alcoholism: Development, consequence, and interventions*, St. Louis: C. V. Mosby. 294-303.
- Yona, T. (1987). Affiliation and self disclosure in a specific ego threat situ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 807~812.



Taifel, H. (1982).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 1-39.

Effects of Anxiety, Sex, Dominance and Liberalism on Social Problem Solving

Keum-Mi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Eun Kyoung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Ducksung Wome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anxiety, sex, dominance and liberalism on social problem solving processing. For the purpose, a sample of 182 undergraduate (female 97, male 85) comple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Cattell's Sixteen Personality Factor Questionnaire and D'Zurilla & Nezu's 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 It was hypothesized that all of male and female have the higher score of social problem solving on the low anxiety group than the high anxiety group. Otherwise other condition, Female in the low anxiety group have the higher score of social problem solving in high dominance condition or high liberalism condition. Male, regardless of the anxiety level, have higher score of social problem solving in high liberalism condition. And male, regardless of the dominance level, have higher score of social problem solving in low anxiety con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a partial support for the three-way interaction hypothesis. The significant findings were discussed in terms of psychological androgyny, and then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and topics to be investigated in the future study were mentioned.

Keyword: social problem solving, problem orientation, problem solving skill, anxiety, sex, dominance, liberalism